



SIMENON
Maigret

03

2011년 9월호 · 매그레 수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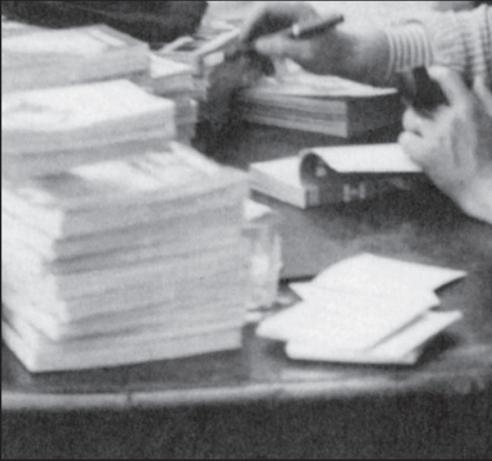
5 억 세계 인 을

사 로 잡 은

추 리 문 학 의 신 대 륙

매 그 레 시 리 즈 를

읽 는 다



CONTENTS

클 루 를
 찾 지 않 는
 추 리 이 야 기
 영 주 4

뚜루의 밑줄 그리기7
 매그레 반장,
 진 실 을
 쫓 다 8

매그레의
 감 독 들
 P o i r o t 9

위 대 한
 탐 정 들 과
 매그레 반장
 콰지모도 13

뚜루의 밑줄 그리기 8
 매그레 반장,
 분노를 쫓다 18

매그레,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에 서다
 오픈 키 드 19

매그레와 수상한 퍼즐 3
 아 잇 2 7



애플 다운로드

매그레의 여인들
 박 현 주 2 9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안녕
 매그레 반장님
 뚜루 3 3

e p i l o g u e
 9 36

매그레 시리즈는 매월 20일, 2권씩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동시 출간됩니다.
 매그레 기동수사대의 웹진 <月刊 매그레>는 매달 초 네이버카페 열린책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그레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다. 드디어 **매그레 앱 출시!**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웹진 매그레 2011년 9월호 발행처 주식회사 열린책들 편집 제1기 매그레 수사대

@openbooks21

@Simenon_Maigret 매그레

openbooks21

jules.maigret

www.openbooks.co.kr



당신은 보드 게임 <클루>를 알고 있는가? 무려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보드 게임인 <클루>는 일종의 추리게임으로 범인, 범행 도구, 범행 장소를 맞히는 게임이다. 여섯 명의 등장인물(머스타드 대령, 화이트 부인, 피콕 부인, 스칼렛 양, 플럼 교수, 그린 씨)이 모두 한 저택에 초대를 받아 저택의 집 주인을 살해한 자를 찾는다는 내용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기도 했다.

범인, 범행 도구, 범행 장소. 이 세 가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추리이다. 게임 <클루>는 추리 이야기의 기본 요소를 정확히 따른다. 게임 참여자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건을 일으켰는지 밝혀 나가며, 그 과정 속에서 추리의 묘미인 스틸을 느낀다. 의외의 인물이 의외의 도구로 의외의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더욱 충격을 받는다. 그럴수록 추리의 재미는 더욱 강해진다.



미국의 인기 탐정 드라마 「몽크」의 한 장면. 주인공인 탐정 몽크가 게임 <클루>를 하고 있다.

고립된 장소나 대저택의 어느 호화로운 파티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파티의 주최자와 참여자 그리고 때때로 탐정이 함께 범인을 찾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애거서 크리스티식 추리 구조다.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 엘리리 퀴의 『Y의 비극』과 함께 흔히 세계 3대 추리 소설이라 불리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바로 그런 구조를 따른다. 이런 구조는 많은 영화나 다른 추리 소설들의 소재로 활용되었을 정도로 추리 소설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게임 〈클루〉의 인기도 이런 구조를 완벽히 따름으로써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더구나 미국의 1950년대 매카시즘 열풍은 누군가(범인)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인 추리의 인기를 더욱 부채질했을 것이라고 본다.

애거서 크리스티식 추리 게임 〈클루〉와 심농식 추리 소설의 차이

심농식 추리 이야기는 게임 〈클루〉나 애거서 크리스티식 이야기 구조와 상당히 다르다. 모든 추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심농의 이야기에든 기본적으로 범행이 있고, 범인이 있으며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심농은 이야기의 도입부에 범인을 알려 주거나 하는 식으로 범행에 관한 〈클루(단서)〉를 미리 알려 주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일견, 심농의 이런 스타일은 열심히 범인을 색출하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 매우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다. 최고의 반전이라고 꼽히는 영화 「식스센스」가 미리 결말을 이야기해 주고 시작했다면 영화는 스릴러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채 더없이 지루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농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미리 클루를 흘린다.

때문에 처음 그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이야기의 도입에 흘려진 클루를 손에 들고 당황할지도 모른다. 처음 심농을 접했을 때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내 그런 감정이 사라진다. 심농이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왜 그런 식으로 불친절하게 굴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심농의 관심은 애초에 범인, 범행 도구, 범행 장소가 만들어 내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반전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의 관심은? 바로 사건이 아닌 사연이었다. 그는 사건이 아닌 사연에 주목한다.

게임 〈클루〉나 애거서 크리스티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연. 심농의 이야기는 전



클루(단서)를 찾아나서는 추리 이야기 「클루」

형적 추리 구조와 전혀 달라서 추리하는 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사건에만 주목하던 사람들을 사연에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농식 추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심농의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추리하는 자들), 특히 초보자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이야기를 대하면 좋을 것 같다.

1. 범인이 누구일까에 대해 크게 의문을 가지지 말 것. 범인이 누구일까에 집중하면 이른바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 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2. 범인과 피해자 모두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볼 것. 그들도 결국 사연을 가진 인간이다.
3. 범행 방법이나 장소가 특별하거나 기발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것. 너무 기발하면 오히려 작위적인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의외로 소소하고, 단순한 방법이 더욱 실감날 때도 있다.
4. 반전을 기대하지 말 것. 영원한 반전을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영화 「인셉션」을 추천한다. 이야기는 또 계속된다는 식의 결말...

여운이 오래가는 추리를 원한다면

사람마다 선호하는 추리 이야기 구조가 있다고 본다. 흔하고 익숙한 <클루>나 애거서 크리스티가 더욱 끌리는 사람. 천재적 추리를 맛볼 수 있는 <소년 코난>이나 <셜록 홈즈>가 더욱 끌리는 사람. 그러나 여운이 오래가는 사연 있는 추리를 원한다면 당연히 심농의 이야기를 추천한다. 나는 네 번째 이야기인 『라 프로비당스의 마부』와 5권 『누런 개』를 읽고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무려 추리 소설을 읽고!) 심지어 그 감동은 인류의 고전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비견될 정도였다. 심농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단면을 보고, 느끼고, 고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한 여운과 감동이 있는 추리 소설, 그것이 바로 심농의 이야기이다.

매그레 반장, 진실을 쫓다



“천만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린애처럼
 단순한 일인걸요!
 당신은 삶을 사랑한 겁니다.
 남정네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능한 한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할 뿐이에요...”

와! 벌써
 해결 돼어?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당신!**

네덜란드
 살인사건
 SIMENS
 Maig
 07



심농의 작품들은 곧 영화이다. 극장용 장편 영화만 모두 60여 편, 텔레비전 영화는 총 3백여 편에 달한다. 심농의 작품에 도전한 감독들을 간단히 들자면 장 들라누아, 장 르누아르, 장 피에르 멜빌(<장>씨가 많네요?), 앙드레 테시네, 에두아르 몰리나로 등등 수많은 명감독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매그레 반장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매그레의 감독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1. 장 르누아르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아들이다. 매그레 시리즈 최초의 영화인 『교차로의 밤』을 영화화했고, 주인공인 매그레 반장은 그의 동생인 피에르 르누아르가 맡았다.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맛보았으나, 이 작품을 계기로 심농과 장 르누아르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재능이 절정에 달한 시점은 1930년대로서 「라마르세예즈」, 「수인」 등의 명작이 있고, 「위대한 환상, 1937」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다. (이 작품은 고바야시 마사키 감독의 대작 「인간의 조건」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장르누아르

2. 쥘리앵 뒤비비에

매그레 시리즈의 명작 『타인의 목』을 1933년에 영화화한 감독이다. 초기에는 연극배우와 무대감독을 하다가, 근대극운동의 선구자 A.앙투안이 영화연출에 손을 대자 영화계로 진출, 66여편의 작품을 발표한 프랑스 영화계에서는 보기 드문 다작의 감독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당근」, 「하얀 처녀지」, 「무도회의 수첩」 등이 있다. 만년에는 상업주의적인 작품이 많았고, 예술가라기 보다는 프로듀서적인 성향을 보여 주었다.



쥘리앵 뒤비비에

3. 장 피에르 멜빌

프랑스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1950년대 말 영화계를 휩쓸었던 프랑스 누벨바그의 선구자. 1930년대 미국의 스릴러 영화를 보며 감독의 꿈을 키웠으며, 문학을 각색한 작품, 갱 영화, 하드보일드 등 다양한 장르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 주었다. 장 뤽 고다르 감독의 명작 「네 멋대로 해라」에서는 소설가로 직접 출연하기도 했으며, 후대의 감독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구자적 감독 중 한 명이다.



장 피에르 멜빌의 대표작 「그림자군단」(1969) 중

4. 장 들라누아

영화화된 매그레 시리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의 하나인 「매그레, 텃을 놓다」를 연출한 감독. 그 외에도 「노트르담의 꼽추」, 「비련」 등의 문예적이고 서정적인 작품들을 많이 영화화한 감독으로 이름이 높다. 가장 상업적인 프랑스 감독으로 꼽히기도 했으며, 장 가뱅 주연의 「매그레, 텃을 놓다」는 특히 그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영화 「매그레, 텃을 놓다」에 출연한 명배우 장 가뱅

5. 앙드레 테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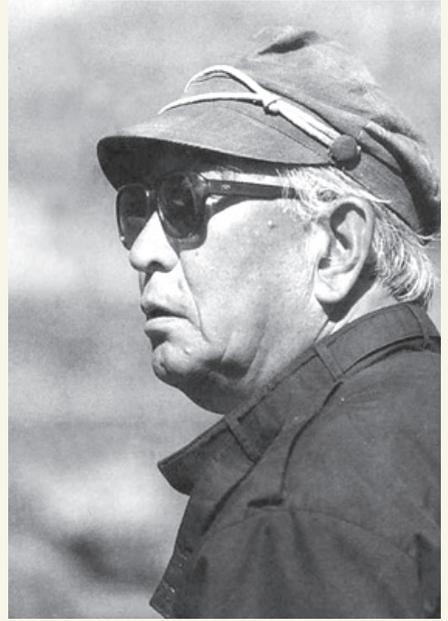
프랑스 누벨바그의 거장 중 하나이며, 평론가 출신의 세련되고 지적인 감독이다. 첫 장편영화인 「폴리나는 떠나고」를 1967-69년 두 해에 걸쳐 만들었으나 두 번째 작품인 「프랑스에 대한 추억」은 개봉 후에야 일반에 공개되기에 이른다. 「프랑스에 대한 추억」, 「바로코」, 「아메리카 호텔」 등의 작품이 있으며 주로 멜로드라마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다.



앙드레 테시네

6. 매그레 반장의 팬, 구로사와 아키라의 「들개」

일본 영화의 3대 거장 중 하나인 구로사와 아키라는 또한 매그레와 심농의 팬이기도 했다. 매그레 스타일을 노골적으로 살려 당시 전후 일본의 혼란한 사회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들개(野良犬)」(1949)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후의 혼란한 현실과 비애를 탁월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마치 한 편의 일본풍 매그레 시리즈를 보는 느낌을 가져다준다.



구로사와 아키라



『위대한 탐정들』이라는 위대한 저작

유명한 추리 소설가이자 추리소설 사가인 줄리언 시먼스는 명탐정들에 관한 유명한 저작을 하나 남겼습니다. 바로 『위대한 탐정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먼스의 탄탄한 추리소설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위대한 탐정들>의 전기를 단편소설 형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탐정은 셜록 홈즈, 미스 마플, 네로 울프, 필립 말로, 에르쿨 포와로, 엘러리 퀸 그리고 매그레 반장입니다.

이 책이 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독자들이 궁금해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추리소설 속의 비밀들입니다. 이를테면 <미스 마플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필립 말로와 레이먼드 찬들러는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 소개된 몇몇 탐정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미스 마플이 노년의 셜록 홈즈에게 어떤 사건을 의뢰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친절하게도 줄리언 시먼스는 탐정들의 행동과 과거에 관해, 모두 각주를 답니다. 탐정이 등장했던 어떤 작품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전기는 마치 <소설>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자잘하면서도 세세한 각주들이 비단 이것이 <소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위대한 탐정들』 속의 매그레

이 짧은 전기 소설은 매그레가 심농에 대해 불평하면서 시작합니다.

〈(심농이) 사무실에서 나와 함께 지냈고 또 사건이 있으면 내 뒤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자가 나에게 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소.

그래 그에게 내 생애에 관한 세부사실들을 적어 주려 하는데, 영 쉽지가 않아.〉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설 속의 인물이 외부의 작가를 불평하는 환상 소설은 아닙니다. 시몬스는 매그레와 심농을 모두 실존인물들처럼 다루고 있고, 심농은 매그레가 겪었던 사건들을 소설로 쓴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불평 후, 매그레는 자신의 과거에 관해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중략) 프랑스의 중심에 위치한 무랭 시 근처에서 태어남 - 난 생년월일은 밝히지 않을 참이오. 독자들이 나에게 관해 모든 것을 다 알아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할

아버지는 소작농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왔다. 아버지는 생 피아크르 장원의 관리인이었는데, 그 장원은 7천5백 에이커에 달했던 것으로 농장이 26개였다. 우리는 장원의 안뜰에 세워져 있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집에서 살았다. 장원에서 고용살이를 했던 다른 가족들도 모두 안뜰에서 살았다. 그들은 나의 아버지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모자를 벗었다.〉

이런 불평들 이후에, 매그레는 자신에 관해서 서술되지 않은 것들의 목록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글 속의 화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심농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체적으로 보아 그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와 같이 울분을 터뜨릴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빠뜨려 놓았기 때문에 매그레의 초장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었다. 매그레는 리샤르르누아르 가에 있는 이 3층

짜리 아파트에서 생애의 태반을 보냈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서술이 돼 있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침대에 누운 채로 담배를 피우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커다란 더블 베드 곁에는 앞면이 유리로 된 옷장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 따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심농은 매그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매그레의 메모>라는 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소설 속에서 밝혀지지 않은 경찰 초년병 시절, 어린 시절 들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줄리언 시몬스는 이런 메모를 이용하여 매그레의 어린 시절이나 자세한 묘사들에 주의를 기울이고는, 마치 매그레가 <심농은 이런 사실을 몰라>라고 불평하는 식으로 전기를 진행하여 나가 는 것입니다.

전기치고는 꽤나 흥미로운 도입이죠? 『위대한 탐정들』은 소설 속에서 매그레를 묘사했던 지문과 대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스럽도록 자연스럽게 서술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전기인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완전한 전기라고 하기에도 뒤틀린 것이 이런 불평을 한 뒤, 매그레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그레가 소설 속에서 언급했던 자그마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만든 일종의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한 커다란 보석상이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석상에 침입한 방법과 금고문이 폭파된 것으로 보았을 때, 장과 루이 뒤아멜 형제의 짓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형제는 감시를 받는 것이 너무 지겨워 그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매각 대상은 폴이라는 남자입니다.

매그레의 두 부하는 폴과 뒤아멜 형제의 감시를 맡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폴의 아파트에는 카스텔이라는 이름의 한 의사가 들락거리죠.



매그레는 폴의 아파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그레는 카스텔에게서 폴의 집에 말라리아에 걸린 슈미트란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앞으로 2~3일은 움직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죠. 그 후 매그레가 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콧수염을 길게 기르고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매그레는 폴의 집에 올라가 슈미트라는 남자와 만납니다. 슈미트는 자신이 벨기에의 외교관이라며 자신을 심문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당신들이 찾을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매그레는 슈미트가 폴에게 어떤 물건을 가져왔고, 폴이 그 물건을 지금 당장 처분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느 가의 혼잡한 거리에서 폴을 발견하게 됩니다. 폴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매그레에게 알은 체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알은 체를 한 폴은 곧장 청과물 도매상으로 갑니다. 상점 주인은 그에게 호박을 봉투 속에 넣어 주는데, 그때 매그레는 봉투 속에 있는 것이 호박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챱니다. 매그레는 폴과 상점 주인, 그리고 청과물 도매상 주변을 서성거리던 모자를 쓴 남자와 콧수염을 기른 남자까지 본서로 연행하려고 합니다.

모자를 쓴 남자는 자신이 <벨기에에서 온 경찰>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콧수염을 기른 남자는 자신을 탐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는 사실…… 에르쿨 포와

로였습니다! 벨기에인 경찰은 <칼

라스>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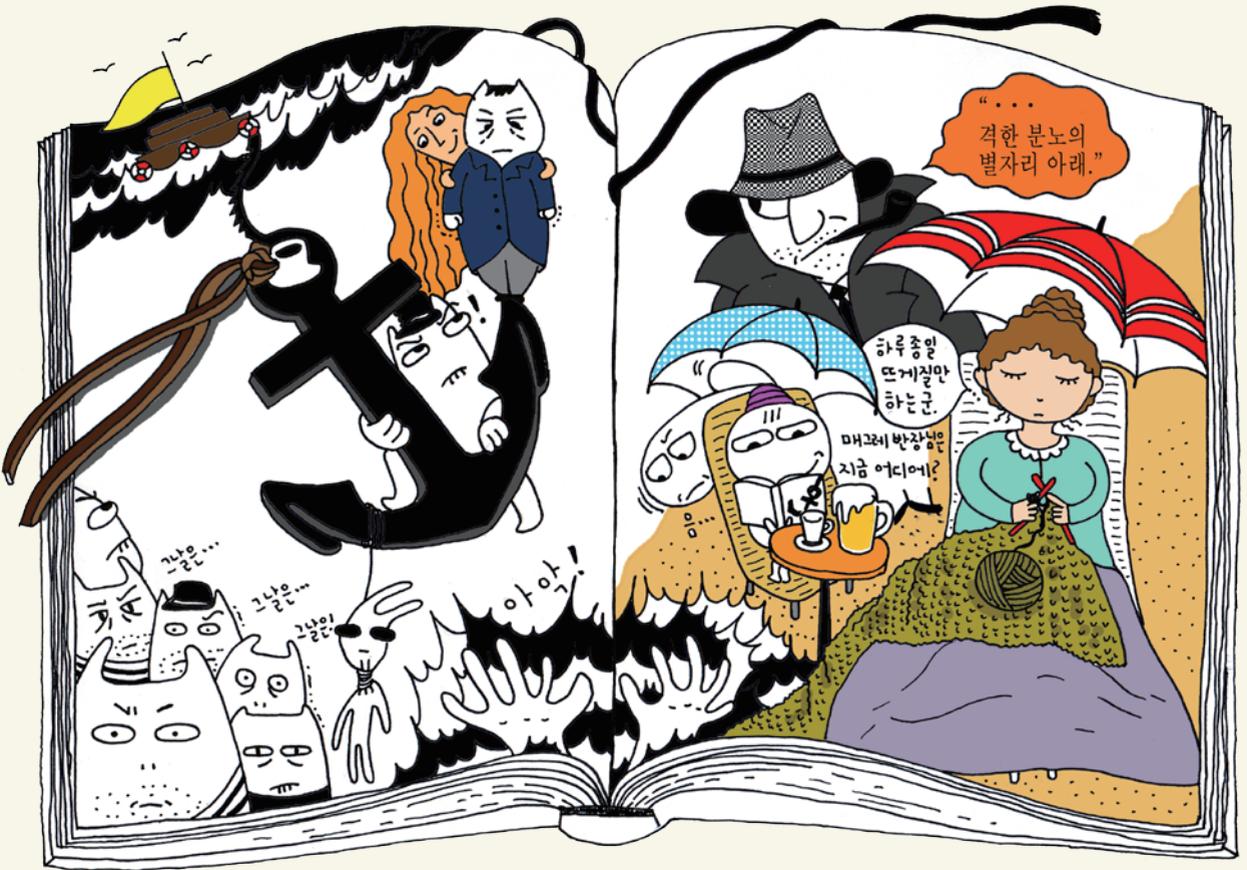


사건의 내막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폴은 벨기에의 외교관인 슈미트가 가져온 서류를 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았다면, 폴은 중개를 해주는 입장에만 서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슈미트가 말라리아에 걸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폴이 그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그레의 시선을 돌려야만 했고, 바로 그때 뒤아멜 형제를 이용해 연극을 꾸민 것이었죠.

포와로와 칼라스는 슈미트가 사실 스파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체포하려고 그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매그레와 포와로가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상이 『위대한 탐정들』에 소개된 매그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글은 매그레에 대한 자세한 소개, 매그레 패스티시 단편 소설, 그리고 매그레와 포와로의 접점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시몬스는 심농의 단순한 문체를 따라하지 않으면서도, 심농의 소설과 비슷한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서 빨리 매그레 전집이 완간되어 시몬스와 같은 전문가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매그레 반장, 분노를 짚다



아마도 불길했던 전조는 전작의 무대가 〈교차로〉였다는 데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절대 만나서는 아니 될, 그렇게 영원히 평행이어야 할 두 세계가 문득 루크레티우스의 빗방울처럼 만나게 되는 장소, 교차로. 때문에 옛사람들이 교차로를 그리 상서롭지 못한 곳으로 여긴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승과 저승이 만나는 곳.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의 세계로 건너올 수 있는 곳. 따라서 로마의 탈영병들은 가장 불길한 것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음(탈영병은 더 이상 로마 사회에서 산 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 형이란 이미 죽은 자인 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 준다는 의미가 강했다) 당연했다. 로버트 존슨이 악마를 만나 록을 탄생시킨 것도 〈교차로〉였다. 아니 그 이전부터 교차로는 자주 사람들에게 악마가 출몰하는 장소로 믿어졌다. 현재 미드 「슈퍼내추럴」에서 딘과 샘이 교차로에서 악마를 소환해 만나는 것도 단순히 로버트 존슨만의 일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란 얘기다. 그렇게 교차로란 용 식으로 원형적으로 불길한 장소이다. 하지만 그 〈불길함〉은 대체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가? 메리 더글러스는 언젠가 글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정체성의 변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녀는 그것을 〈머리카락〉을 들어 이렇게 설명한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일 때는 머릿기름을 바르고, 빗고, 매우 정성들여 치장하는 등 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지만 일단 잘려 나가자마자 〈쓰레기〉가 되며 명시적이고 의식적으로... 대변, 소변, 정액, 땀 등의 오염 물질과 연결된다.

사람의 몸에 있었을 때와 떨어져 나갔을 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완전히 극단의

다른 대접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권에서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의 바꿀 수 없는 부분(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p.51))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게 떨어진 머리카락을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버렸던 과거의 정체성의 잔여물이기 때문인 것이다. 메리 더글러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소멸이 아니라 그렇게 없는 상태로 바뀌는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글러스의 말을 따른다면 교차로에서 느껴지는 저 <불길함>의 정체는 아마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 위협하는 <어떤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심농의 『교차로의 밤』에서 교차로가 주는 불길함은 그저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서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어떤 변화가 엄습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정체성에 타격을 줄 것임을 은밀히 발언하는 것이다. 과연, 거기서 매그레는 낮 동안 억압되어 있던 한 여인을 만난다(여기서 제목의 <밤>이 예고(낮)의 장악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현실로 뛰쳐나오는 <이드>의 시간을 말하는 프로이트적 의미임은 굳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WHO'S THAT GIRL?

세익스피어에게 <여성>이란 기억의 존재였다. 왕이 숨기고 싶은 진실을, 사회가 은폐시키고 싶은 죄를, 역사가 지우고 싶어 하던 비극을 세익스피어의 여성들은 때로는 그 마음에 때로는 그 몸에 새기고 있던 기억의 존재였다. 그래서 그녀들은 남자들에게 소유의 대상이었으며 심판의 거울이었다.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에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기억이지만, 햄릿에게는 심판을 위해 소환시켜야 할 기억인 것이다.

심농의 『교차로의 밤』을 영화로 만들었던 장 르누아르에 이르면 여성은 이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애당초 자신의 부인을 영화배우로 출연시키기 위해 영화 감독이 된 그답게 여성은 애정의 대상이지 세익스피어처럼 소유나 망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믿는 르누아르는 「교차로의 집」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뛰어난 편집을 보여 주는 「교차로의 밤」에서



장르누아르의 영화
「교차로의 밤」 중에서

르누아르가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교차로에 있는 세 집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때로 그는 한 집씩 차례로 번갈아 가며 보여 주는 걸 즐기는데 거기서 그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그 집 하나하나가 당시 프랑스 계급을 상징하도록 관객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교차로의 집들을 통하여 귀족 계급, 신흥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담는다. 흥미로운 것은 그 집에 기거하는 여성들에 대한 묘사다. 거기서 르누아르는 여성이 그 각 계급이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 되도록 만든다. 무엇보다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바로 여성들의 옷차림이다. 르누아르는 계산적으로 하층 계급으로 내려갈수록 옷의 노출이 점점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귀족이나 신흥 부르주아지 여성들은 옷으로 전신을 감싼 채 등장한다. 그네들의 살결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혹은 그 아래일수록 그 드러나는 살결의 부분은 훨씬 많아진다. 이 모든 것을 통한 르누아르의 발언은 명확하다. 여기서 <옷>이란 바로 개인의 자유를 가두는 사회의 인습, 규율, 억압의 상징인 것이다. 그럼으로 노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자유롭다는 의미인 것이다. 때문에 르누아르는 「교차로의 밤」 후반 가장 중요한 장면인 매그레와 엘세의 장면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거기서 엘세는 소설과는 달리 거의 벗거나 혹은 속옷만 입은 모습으로 매그레에게 담담하게 고백한다. 그리고 이때 르누아르는 비로소 매그레와 엘세과 공감 가

능한 대등한 인간관계가 되었다는 듯이 같은 크기로 화면에 담는다. 둘 사이는 더 이상 수사관과 용의자가 아닌 것 같다. 사실 보면서도 지금 매그레가 하고 있는 것이 수사인지 아님 연애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장 르누아르의 「교차로의 밤」은 심농의 원작보다 더 급진적으로 사회 비판을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르누아르는 엘세를 마치 들라크루아의 프랑스 혁명을 이끄는 여신과 거의 비슷한 이미지로 연출하고 있음도 느끼게 된다. 르누아르에게 있어 여성은 이렇다. 그녀는 자유로 이끄는 존재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진정 해방시키는 존재다. 그 벽창호 같은 매그레의 마음마저 허물어뜨릴 정도로…….

그렇다면, 심농은?

교차로는 단순히 프랑스 자체를 모두 담기 위해 선택된 공간만은 아니었다. 심농이 일부러 교차로를 무대로 삼은 것은 어쩌면 그 〈불길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일 수도 있다. 메리 더글러스에 따르면 그 불길함은 바로 정체성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의 정체성이 그토록 위협을 당하기에 심농은 특별하게 교차로를 그 무대로 삼았던 것일까? 답은 물론 소설 자체에 나와 있다. 바로 〈매그레〉인 것이다. 우리는 엘세를 대면하는 매그레에게 뭔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낯새를 느낀다. 어쩌면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장 르누아르의 영화를 보고 그렇게 느낀 것이 나만은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매그레의 포커 페이스는 제대로 그 속내를 보여 주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와 장 르누아르)는 분명 그의 눈빛으로 뭔가 유혹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 누가 굳어진 중년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뿌리고 있는가? 그건 바로 〈엘세(Else)〉다. ELSE…… 이 얼마나 재치 있는 작명인가? 프랑스에서 여성을 가리키는 ELLE에서 〈L〉 하나만 〈S〉로 바꾼, 거기다 영어로는 〈다른〉이란 뜻마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심농은 이미 이름에서 그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엘세〉는 하나의 개체의 이름인 고유명사가 아니라 용의 〈아니마〉와도 같이 여성 자체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인 것이다. 바로 그 〈여성성〉과의 근접 조우 상태에서 매그레는 흔들리는 것이다.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심농에게 있어 여성은 유혹의 존재로 나타난다. 그야말로 뱃사람을 노래로 홀려 익사시켰던 그 유혹의 〈세이렌〉인 것이다.

〈세이렌의 유혹〉이라는 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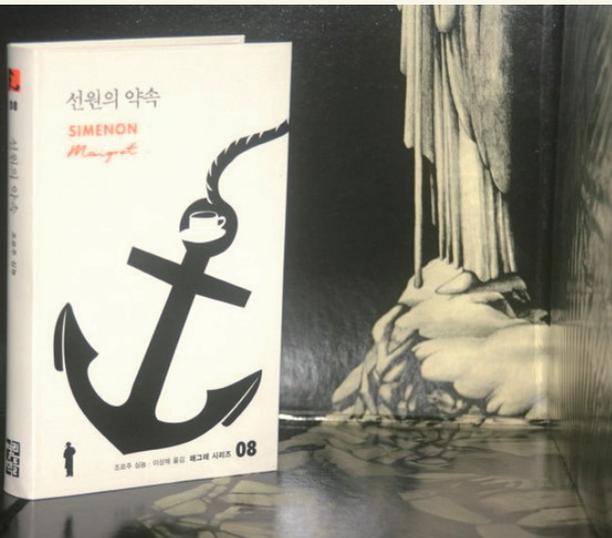
그것은 매그레에게 어떤 유혹으로 다가오는가? 『교차로의 밤』에서 우리는 그 정체를 똑똑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네델란드 살인사건』에서 심농은 그 유혹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생폴리앵에 지다』에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했듯이 이번에는 자신의 삶 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던 그 유혹(심농은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에게 만 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한다. 아마도 그 때문에 『생폴리앵에 지다』에서 문득 벨기에로 소환당했듯이, 『네델란드 살인사건』에서도 더 북쪽의 네델란드로 역시나 불현듯 소환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도 파리에서 최북단 〈텔프제일〉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완벽하게 고립된 그곳에서 매그레는 그와 똑같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바다로 향한 열망을 억누르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포핑아〉라는 남자의 존재와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그리 오래 잠들어 있지 못했는데 그건 젊은 여자 리번스의 유혹 때문이었다. 그녀는 포핑아에게 내내 자신을 데리고 여기에서 달아나 달라고 조른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묘한 점 하나를 보게 된다. 〈포핑아와 리번스〉의 관계가 어쩐지 『교차로의 밤』에서 〈매그레와 엘세〉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중년의 남자와 젊은 여자의 교제라서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엘세〉와 〈리번스〉라는 기표가 가지는 의미 때문이다. 물론 〈엘세〉는 심농의 소설이 아닌 장 르누아르의 영화에서 나타난 〈엘세〉이다. 그녀의 기표와 〈리번스〉의 기표는 사실 동일하다. 모두 자유 혹은 해방의 상징인 것이다. 즉, 장 르누아르에서 엘세가 매그레를 그가 가진 사회적 굴레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듯이, 리번스 역시



『네델란드 살인사건』

포핑아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표인데도 장 르누아르와 심농은 서로 그 기표를 다르게 받아들인다. 장 르누아르는 그걸 그대로 <자유 혹은 해방>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심농은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다가오는 엘세를 피카소의 <해변을 달리는 두 여인>처럼 기꺼이 맞아들이지만 심농은 주저한다. 그는 선뜻 리번스의 손을 잡지 않는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거기서 서성인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것이 옳은 길인가? 그 너머에서 계속 세이렌의 고풍적인 노래 소리는 들려오지만 그는 기둥에 단단히 결박당한 오디세우스처럼 거기로 움직이지 못한다. 아니, 그는 오디세우스가 그랬듯이 붙들려 있고 싶어한다. 그 기둥에. 그가 단단히 결박되어 있는 기둥이 바로 <일상>인 것이다.

전작 『생폴리앵에 지다』에서 원죄처럼 가지고 있는 한 죽음에 대한 죄의식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기꺼이 맞아들였던 <일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다시 나타난다. 바로 이 (『생폴리앵에 지다』에서 비롯된) <일상>에 대해 결박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심농은 르누아르처럼 유혹에 있는 그대로 몸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일상은 남들과 똑같이 그저 단순하게 영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애써 취하려 연거푸 들이켜 부었던 코냑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차라리 열망이라고 해야 옳다. 살기 위해서 그는 일상의 갑옷을 입은 것이다. 생존을 위한 열망은 아무래도 꿈을 위한 열망보다는 그 크기와 지속 면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심농은 모든 걸 접었다. 포핑아도 그랬다. 하지만 결국 포핑아는 살해당한다. 그가 그토록 머물려고 했던 집에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그가 죽은 것은 결국 그가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이었다. 세이렌의 노래 소리에 그가 결박을 풀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과연 정말 살인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왜일까? 심농의 무의식에 흐르는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 혹시 자신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포핑아를 더 큰 유혹이 되기 전에 심농 스스로 <살인>을 빙자하여 지워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인가... 아무래도 이건 진실일 것이다. 포핑아는 아마도 정말로 심농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매그레는 처음부터 범인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내내 반복하는 말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원의 약속』

는 정말 그대로의 진실이 아닐까! 그는 그렇게 해서 창조주의 살인을 짐짓 눈감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매그레가 바보가 되어야 했을 만큼 유혹은 그토록 치명적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우리는 그 다음 작품 『선원의 약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선원의 약속』은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며 또한 파괴적인지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단히 스스로를 그 일상이라는 기둥에다 결박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것은 『누런 개』에서 발아해 『교차로의 밤』에서 성장하여 이제 『네덜란드 살인 사건』에서 불현듯 〈세이렌의 섬〉으로 떠올라 버린,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하나의 커다란 유혹이 되어 버린 〈여성〉이라는 기표에 관하여 심농 스스로 그것에 더욱더 저항하고 일상에 자신을 단단히 결박하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자기 방어용 작품이다. 『선원의 약속』은 놀랍도록 감성에 차 있고 한편으론 남성의 우울마저 진하게 느끼게 만드는 작품이지만 그 근처에 흐르는 것은 유혹에 대한 경계다. 그 경계심이 하도 커서 어쩐지 『선원의 약속』 표지처럼 커다란 닻을 자신이 지금 딛고 서 있는 일상의 바닥에다 꽂아 두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는 매그레의 아내 마저 등장시켜 일상의 틀을 더욱 견고히 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의 한편은 내내 스스로에게 보내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관계들이 이지러지고 깨어짐을 통해 그것들이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끊임없이 속삭인다. 때문에 주 배경이 〈바닷가 해안〉이 되는 것은 정말 상징적이다. 심농이 그 아무리 커다란 닻을 일상에다 박아 두고 싶

어도 그야말로 <경계>의 공간. 늘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뛰어들지도 못하고 머무르지도 못한다. 세이렌의 노래 소리는 끊이지 않고 결박한 끈은 언제까지 튼튼하게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늘 갈망을 커다란 성게 마냥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태. 그 진퇴양난... 하지만 지금 나는 매그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심농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틀렸다. 난 지금 당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인 당신을. 『누런 개』에서 『선원의 약속』까지 당신이 읽었다면 당신도 보게 되었을 것이다. 포핑아에게서도 그 배, 오세양호의 선장에게서도, 르 클랭슈에게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씩씩히 자신의 분신들을 음미하는 매그레에게서도 바로 그들과 똑같은 갈망과 번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그렇다. 이걸 남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얘기인 것이다.

매그레와

수상한 퍼즐

자...다들
돈보기 준비하세요



3

by 아잇

가로1 세로10			세로11		가로2	세로12		세로13
		가로3				가로4		
가로5		세로9						
			가로6	세로7			가로7 세로8	
	가로8 세로6					가로9		
가로10			가로11				가로12	
						가로13 세로5		
세로2		가로14	세로3					세로4
	세로1				가로15			
	가로16							

가로

1.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삼흥학교를 세우는 등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 부미를 사살하고 사형된 인물.
2. 보호하여 줌. 신 또는 부처가 힘을 베풀어 보호하고 도와줌. <신의 ○○가 있기를!>
3. 매그레 시리즈 제8권 『선원의 약속』(10장 참조)에 등장하는 여자 아델. 그녀는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피에르 르 클렝슈를 이렇게 불렀다.
4. 영국식으로 홍차에 우유를 타서 마시는 음료이다. 주로 진하게 우려낸 아삼이나 실론티에 우유와 설탕을 타서 마신다.
5. 참새목에 속하는 새. 수컷의 겨울깃은 온몸이 검고 보랏빛 광택이 나며, 한자어로 효조(孝鳥)라고도 한다.
6. 비틀즈의 창립 멤버인 ○○○은 1980년 뉴욕에서 과격 팬이 쓴 총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7. 간단하고 편리함. 물건의 내용, 형식 등을 즐기거나 간편하게 하여 이용하기 쉽게 한 상태를 이른다. ○○역, ○○화장실.

8. 매그레 시리즈 제8권 『선원의 약속』에 등장하는 카페 〈선원의 약속〉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이름. 희한하게도 그녀를 부르는 이들은 많은데 정작 그녀의 대사는 단 한마디도 없다.
9. ○○시(市)는 미국 DC코믹스 사의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가상의 도시이다.
10. 삼으로 짠 천으로 베, 대마포라고도 한다.
11. 매그레 시리즈 제7권 『네덜란드 살인 사건』의 배경이 된 곳은 네덜란드 북동부의 도시 ○○○○이다.
12.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매우 급함을 이르는 말. 〈○○의 관심사〉.
13. 달그림자를 토영(兔影)이라고 하는 것은 달나라 계수나무 밑에 토끼가 살고 있다는 전래의 민간설화에서 유래하였다. 그렇다면 달[月]을 달리 이르는 말은 토백(土魄)과 함께 또 무엇이 있는가.
14. 1982년 한국의 씨앗사에서 출시한 재산증식형 게임. 이것은 국내 최초의 보드게임이다.
15. 소설의 제목과 동명인 〈○○○○〉라는 이름의 한 호텔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이상과 현실, 사랑과 증오를 다양한 시선으로 살피고 있는 나기브 마푸즈의 작품은 무엇인가. 열린책들 W세계문학 173번.
16.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과 무의미함을 충격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작품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열린책들, 2009)의 저자는 에리히 마리아 ○○○○이다.

세로

1. 인도 요리의 하나인 ○○라이스는 생강, 후추, 마늘 등을 섞어 만든 맵고 향기로운 노란 향신료로 만들어진다.
2. 극장에서 오전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입장요금을 조금 깎아주는 것을 ○○할인이라 한다.
3. ○○○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며, 소장된 미술품의 규모 또한 세계 최대이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궁전을 미술관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의 이름은.
4. 매그레 시리즈 제7권 『네덜란드 살인 사건』(2장 참조)에 등장하는 오스팅이란 인물은 보르کم이라는 섬에서 등대를 관리한다는 조건하에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 시장〉이라 부른다.
5.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품으로 러시아 여행 직후 쓰인 장편소설이다. 특히 작가의 공산주의 경험과 그에 대한 감회,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예술적으로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는 이 작품은 무엇인가.
6.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번역되는 작가로 남아 있으며, 미셸 투르니에가 〈프랑스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지리학자〉라고 극찬한 이 작가는 누구인가.
7.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청년 장 발장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한 인도주의적 세계관으로 일관된 파란만장한 서사시적 작품으로서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이 소설은.
8. 간과 쓸개의 거리가 초나라와 월나라의 관계처럼 멀. 즉, 거리상으로는 서로 가까이 있지만 그 관계가 매우 멀다는 의미의 한자성어.
9. 귤불에 다는 장식품.
10. 플랑드르 문학의 새로운 기수 디미트리 베르헨스트의 작품. 소외계층, 이민족, 하층민, 모든 차별과 차이에 저항하는 참여 작가의 문학적 마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의 제목은 『사물의 ○○○○성』이다.
11.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하며,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는 뜻이다. 〈천상천하○○○○〉.
12. 미국작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자전적 장편소설로, 퇴학당한 한 소년이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세상에 눈떠가는 과정을 10대들이 즐겨 쓰는 속어와 비어를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의 파수꾼』이다.
13. 매그레 시리즈 제8권 『선원의 약속』 1장의 소제목은 〈유리를 씹어 먹는 자〉이다. 이 유리를 씹어 먹는 자는 ○○○○라는 이름의 남자를 가리킨다.

* 정답은 36쪽



조르주 심농을 연구한 여러 영어 텍스트를 읽으면 pr-로 시작하는 영어 형용사 두 개가 자주 눈에 띈다. 다작을 의미하는 prolific과 로마 신화에서 남성 생식력의 신을 가리키는 프리아포스에서 온 priapic이다. 기실 작가와 개인으로서의 심농을 묘사하기에 이 두 단어보다 적당한 표현은 없다. 4백 편 이상의 작품을 쓴 작가와 자기 주장에 따르면 1만 명이 넘는 여자와 침대를 같이 했다는 남자가 동일인인 것이다. 두 번째 부인인 드니즈의 말에 따르면 이는 과장이며 1천2백 명 정도라고 하지만 그 또한 범상한 숫자는 아니지 않은가.¹ 작가의 생산력을 쾌락주의적 성격과 필연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심농의 경우에는 둘이 관련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리 무리는 아닐 듯싶다.

〈매그레 반장〉 시리즈에도 이 두 가지 성격이 교묘하게 얽혀 있다. 남성 중심적 성격의 심농이 75편의 장편 소설에 걸쳐 창조한 매그레 반장의 세계는 지극히 남성적으로 보인다. 문학 연구가 에리카 아이싱어²는 매그레 소설들에 나타난 여성들은 la maman(어머니) 혹은 la putain(창녀)의 이분법으로 나뉘질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로 성녀/창녀의 남성주의적 이분법이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작품은 〈선원의 약속〉이다. 암전하고 남자에게 헌신적인 마리 레오네크와 여러 남자들의 노리개로 살면서 명확한 주체성도 없는 아델의 대조를 통해서 매그레의 여성관이 드러난다. 『교차로의 밤』이나 『네덜란드 살인 사건』에서처럼 정조 관념이 희미하며 팜 파탈인 여자들이 범죄의 한가운데에 있기도 하고, 『타인의 목』에서처럼 여자들이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누런 개』에서는 한 여자 안에 남자에게 헌신적인 착한 여자와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의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매그레 소설에는 다양한 여자들이 나오지만 여자들은 많은 경우 피상적으로 그려지거나 이해와 인내의 화신처럼 묘사된다. (심농의 비매그레 소

설에 강한 여성 캐릭터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에게 불공평한 처사리라. 앙드레 지드가 카뮈의 『이방인』보다도 더 걸작이라고 극찬했다던 심농의 『쿠테르 씨의 미망인』은 시몬 시노레와 알랭 들롱이 나오는 영화로 더 유명한데, 여기에는 아주 강렬하고 의지적인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아이싱어의 글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 질문이다. 홈즈 패러디 등에서 홈즈와 왓슨은 가끔 여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매그레의 경우에도 같은 상상을 할 수 있는가? 글쎄, 아이싱어가 단언하듯이 여성 경찰로서의 매그레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누런 개』에서처럼 매그레가 여성을 가엾게 여기거나 동정하면서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에게서 여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보이는 부분이 자주 강조되지는 않는다. 심리적인 수색과 탐문, 야간 잠복 근무와 미행, 죄수를 탈옥시켜 진범을 잡겠다고 하는 등의 무모한 계획 등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성 탐정에게 어울리는 수사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시 심농의 지극히 남성적인 성격이 작가의 분신으로서의 매그레에 투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한 심농과 매그레를 동일시하는 것도 역시 위험하다. 두 번의 결혼을 하고 공공연한 외도를 일삼았던 심농과 달리 매그레는 아내인 루이즈에게 충실한 남편이었다. 리샤르르누아르가 132번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매그레는 약간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는 남자기는 해도 대부분의 책에서는 아내와 가까운 듯 그려진다. 『게물랭의 댄서』에는 남편이 수사를 위해 무희의 집에 갔다는 걸 알게 된 부인이 살짝 바가지를 긁자 그에 대해 남편이 곤란해하면서도 무심히 대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꽤 정답다. 매그레 소설에는 원만한 결혼 관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그레 부부의 결혼 관계는 이 정도만 해도 예외적으로 행복한 것이다. 평론가들은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매그레 부인이 수동적인 위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³ 매그레는 수사로 자주 집을 비우는 남편이고 아내는 식사를 해놓고 기다리는 등, 내조를 해주는 역할로 종종 묘사된다. 『타인의 목』에는 이러한 대목이 있다.

매그레 부인은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7시부터 남편은 커피가 입이 델 정도로 뜨거운 것도 모르는 채 들어켜고는 나가 버렸다. 간밤에

도 새벽 1시에야 무뚝뚝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또 그렇게 잠자코 나가 버린 것이었다. 『타인의목』, p.99

이처럼 이상적 아내로서 매그레 부인은 차분한 <내조의 여왕> 같은 이미지로 묘사된다. 로베르 J. 쿠르틴이라는 작가가 『매그레 부인의 요리법Le Cahier de recettes de madame Maigret』을 썼을 정도로 남편이 수사에 지쳐 돌아오면 따뜻하고 정직한 요리를 내놓는 성실한 아내의 모습이다. 가끔은 남편의 수사에 약간의 도움을 주기도 한다. 『매그레 부인의 친구L'Amie de Mme Maigret』에서는 자기 자신이 사건과 연관되어 직접 단서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매그레 부인의 숭배자L'amoureux de Madame Maigret』에서는 남편과 같이 시체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인은 가정의 역할에 머물렀다. 매그레 시리즈가 일본에서 드라마화되었을 때는 사토 토모미라는 배우가 부인 역을 맡았는데, 심농 본인이 <아주 사랑스러운 일본 여인>이라고 칭했으며 가장 훌륭한 매그레 부인이라고 극찬했다. 사진으로 본 사토 토모미는 아주 참하고 여성적인 인상으로, 이를 보면 심농이 머릿속에 그렸던 매그레 부인의 이미지를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역대 매그레 부인들. 왼쪽부터 안드레이나 파냐니, 사토 토모미, 미슐린 프랑시, 잔부아텔

실제로 심농은 어린 나이에 결혼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 설명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⁴ 공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저녁에 앉아 있는 목가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려 했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죽도록 가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단다. 당시에 파리의 가정부 월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쌌던 것도 그 이유였다. 매그레 반장을 위해서 변명하자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진실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여러 소설에서 매그레는 수사를 하고 있을 때도 아내에게 늦는다는 전화를 해주는 따뜻한 남편으로 보이기도 한다(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는 남편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꽤 훌륭한 남편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밥 쥐>밖에 말하지 않을 듯한 무뚝뚝한 남편으로 보일 때도 있다. 아내와 정부를 같이 데리고 여행하거나, 조제핀 베이커 같은 재즈 싱어와도 염분이 있었다고 하는 희대의 바람둥이 심농 본인의 삶을 생각하면 『게물랭의 댄서』에서 매그레 부인이 한 말, <에그, 남자들이란 다 똑같아!>가 딱 들어맞는 말일 것도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그레 반장의 그 무뚝뚝한 얼굴 아래에는 부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 감사가 언뜻 엿보이기도 한다. 어느 쪽이 진짜 그의 모습일까.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매그레 소설을 읽어 보면서 가늠해 볼 일이다.

1 Theroux, Paul. (2008). George Simenon, the existential hack, from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March 12, 2008). http://entertainment.timesonline.co.uk/tol/arts_and_entertainment/the_tls/article3539880.ece

2 Erica M. Eisinger, "Maigret and Women: La maman and la putain," in Journal of Popular Culture (copyright © 1978 by Ray B. Browne), Vol. XII, No. 1, Summer, 1978, pp. 52-60.

3 Lucille Frackman Becker, in her Georges Simenon(copyright © 1977 by Twayne Publishers, Inc.; reprinted with the permission of Twayne Publishers, a Division of G. K. Hall & Co., Boston), Twayne, 1977, 171 p.

4 1997년 8월 10일 뉴욕 타임즈 기사. 「The Maigret Machine」 중에서 인용

안녕, 매그레 반장님.

by 뚜루

얼떨결에 시작했고



나? 뽕인 거야?

3개월을 활동했다.





잠깐만
기다려.
이것만 읽고



나부터!

오우!
9, 10권까지!

3개월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좀 버라이어티한
일도 많이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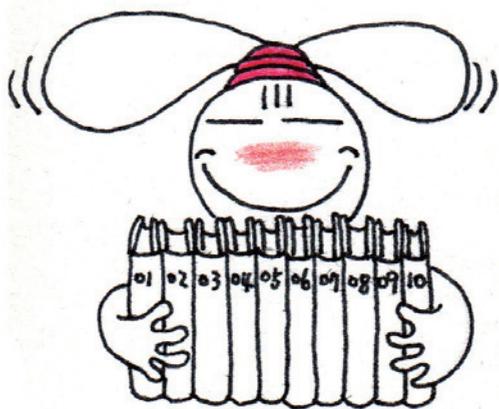
나인거다!

가야악~

무엇해요, 무엇해요...해요

해요...

나인드, 재미있는 경험도 하고.



감사합니다.

...

매그레기동수사대 1기
마치며.



월간 매그레
9월호에 부쳐

〈매그레와 수상한 퍼즐 3 정답〉

안	중	근		유		가	호		프
라			큰	아	기		밀	크	티
까	마	귀		독			밭		루
움		고		존	레	논		간	이
	쥘	리			미		고	담	
삼	베		텔	프	제	일		초	미
	른				관		토	월	
조		블	루	마	블		다		보
조	카		브			미	관	마	르
	레	마	르	크			바		퀸

오픈키드

매그레…… 이타케에 갇힌 오디세우스. 푸른 파도 넘어 세이렌의 노랫소리. 연적들이 흘린 붉은 피 가운데서 페빌로페가 웃는다. 그 두 소리 사이에 우리는 갇혀 있다. 매그레도…… 나도……

Poirot

매그레 시리즈를 기다리느라 일각이 여삼추 같았던 5월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열 권 남짓한 작품들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75편의 모든 작품이 모두 무사히 번역되기를 바라며, 매그레 반장이 국내에서 흠즈나 뤼팡 못잖은 명성과 인기를 얻기를 바란다.

뚜루

매권마다 드러나는 매그레 반장의 매력이란!

콰지모도

매그레 시리즈의 완간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영주

열린책들! 열린독자! 열린미래!



소설, 그것은 인간이다. 벌거벗은 인간과 옷을 입은 인간, 일상을 사는 인간. 때로 그것은 벌거벗은 인간과 옷을 입은 인간, 영원한 인간과 모종의 교육을 받고, 모종의 계층에 속하고, 한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사이의 끔찍한 드라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운명과 드잡이를 하는 인간의 드라마다.

조르주 심농, 『소설가』(1945) 중에서

the end.